

# 신가동 주민들, 불법광고물 수거해 장학금 마련

수거보상금 100만원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받은 보상금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이웃들의 소식이 훈훈함을 더해 주고 있다.

3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한 해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뒤 받은 수거보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광산구는 불법현수막 1장 당 500원~10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사회단체 등이다.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금수 위원장은 "이 장학금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웃 살피는 일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동 행정복지센터는 협의체의 뜻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 포토뉴스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가는 인형극 신청 마감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월 24일 등록 일반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찾아가는 인형극 신청 접수 마감'을 마쳤다. 신청한 어린이집 20곳은 4월 5~9일 5일간 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원송이가 달라졌어요' 식습관 개선 인형극을 실시한다.

/광양=조순익 기자

# 순천용당초, Wee클래스 교육부장관상 수상

우수사례 공모전서 학교 적응 돕고 건강한 성장 지원 '대상'



순천용당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주최한 '제10회 위(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위(Wee) 프로젝트는 Wee클래스(학교상담실)-교육지원청(Wee센터)-도교육청의 종합적인 안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응력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심리적 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와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해마다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순천용당초 이석현 교장은 "Wee클래스의 운영이 본격화된 것은 2년 남짓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순천용당초등학교 교육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Wee클래스를 운영하는 옥은희 전문상담교사는 "코로나19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교장 교감선생님, 동료교사, 상담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있었기에 심리적으로 지친 친구들에게 변함없이 온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광양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양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전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 건보공단 무안신안지사, 모니터단 간담회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고객가치경영 실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최순선은)는 3일 고객을 대표해 업무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될 제 9기 건강보험 모니터단원(임기 1년) 1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상반기 건강보험 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에 대해 안

내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대두된 공공병원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이 되며 진료의 표준을 제시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무안=김삼호 기자

# '서울유학생의 설레는 영암살이 시작'

유학생과의 만남...11명 구립초서 농촌유학생할



영암교육지원청은 전남농산어촌 유학생과의 만남으로 2021학년도 영암교육발전의 행보를 시작했다.

구립초에서 농촌유학생을 시작한 총 11명(6가족)의 학생들이 낮

선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영암에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11명의 유학생들이 새 봄 새 출발을 하게 된 구립초등학교는 농산어촌유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학년 준비기간 중 교사협의회를 열어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구립초 오종태 교장은 "유학생 학부모와의 간담회 및 유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함께 배우고 더 넓어 성장하는 구립행복학교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고 응원했다.

# 학교법인 만대학원, 26명에 장학금

학생 26명에 장학금 1300만원...광덕고서 수여식

학교법인 만대학원이 지난 2월 제41회 입학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광덕고 비전홀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에 매진해 온 만대학원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고령신씨 대종회 장학생 6명, 동창회 장학생 3명, 꿈나무 꿈하는 장학생 17명 등 총 26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신홍수 이사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힘이 되도록 장학금을 출연해 주신 고령신씨 대종회와 만대학원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장학금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 국가를



이끌어 갈 동량으로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은 광덕고 최유찬 학생은 "‘광덕인’이라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만대학원 교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조성한 장학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김도기 기자

# 광양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지원 첫걸음 내딛다

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유·초·중·고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전남 특수교육 2021 설명회'를 전라남도 원격연수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남특수교육 추진 과제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장애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교육 및 통합학급 담당 교사와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조정자 광양교육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다르지 않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광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활용 교육생 모집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중년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기계 활용 교육'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업기계 기초 기술, 농업기계 정비 실습교육, 농기계 정비기능사 과정, 굴삭기·지게차 등 3톤 미만 조종사 면허과정 등 4단계로 나눠 총 26회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중년(50~60대 농업인·시민)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kbangju@korea.kr) 접수하면 된다. 접수자 중 20명을 선정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생 중 일부를 평가를 거쳐 현장인턴으로 채용하며 농기계 정비·점검, 농기계 교육 보조 강사 등 현장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등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gwangju.go.kr/agri)를 참고하면 된다.

/한동주 기자

### 오늘의 운세

<p><b>子</b> 48년생 여기저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60년생 민족스러운 거대 한숨이 돌러진다.72년생 시간을 쪼개는 부지런함을 가져보자.</p>	<p><b>+</b> 42년생 피곤을 달래주는 구경에 나서보자.54년생 충분히 아는 공부 연습을 더해보자.66년생 마음까지 맞춰준 선물을 받아보자.</p>
<p><b>丑</b> 61년생 의지와 끈기의 결실을 볼 수 있다.73년생 애써했던 노력이 처음이 되어간다.89년생 최고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오른다.</p>	<p><b>木</b> 55년생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펼쳐내자.67년생 빈틈이 없는 꼼꼼함을 가져보자.79년생 추워있던 지갑에 봄이 찾아온다.</p>
<p><b>寅</b> 74년생 위기가 기회다. 새로운을 택해보자.86년생 생각은 단순하게 용기가 우선이다.98년생 어색한 공기 분위기를 바꿔보자.</p>	<p><b>申</b> 68년생 밤이 꺼지지 않는 흥에 취해보자.80년생 좋다 하는 고백 시기를 알아보자.92년생 농담을 지우고 숙연함을 가져보자.</p>
<p><b>卯</b> 51년생 절실했던 도움이 제 발로 찾아온다.63년생 힘이 실려지는 약속을 받아보자.75년생 티끌 모아 태산 내일을 대비하자.</p>	<p><b>酉</b> 45년생 추억이 깨어지는 걸음을 걸어보자.57년생 세상은 이야기 존경을 받아내자.69년생 경쾌한 웃음이 깨알처럼 퍼져 간다.</p>
<p><b>辰</b> 64년생 거절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준다.76년생 표정 환해지는 선물을 받아보자.88년생 최종의 목표지가 눈으로 보여 진다.</p>	<p><b>戌</b> 58년생 어떻게 살아왔나 평가를 받아보자.70년생 출연히 떠나는 나그네가 되어보자.82년생 단단했던 결심 완성을 볼 수 있다.</p>
<p><b>巳</b> 77년생 반대 입장에서 이해로 더해보자.89년생 깔끔한 마무리 매듭을 쳐야 한다.01년생 낮가림 자리에도 소신을 지켜내자.</p>	<p><b>亥</b> 71년생 의도는 적중한다. 배짱으로 맞서자.83년생 산 넘어 산이다. 부족함을 채워보자.95년생 일취월장 조직의 일꾼이 될 수 있다.</p>